

전남도, 자립준비청년에 ‘임대료 월 1만원’ 주거 지원한다

전남개발공사·광주은행·전남자립지원전담기관 업무협약 체결
최대 6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생활필수품 후원 등 정착 지원

열여덟살에 홀로 세상에 던져진 전남지역 자립준비청년들이 월 임대료로 1만원만 내고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착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전남도는 11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개발공사, 광주은행, 전남자립지원전담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한 통합 주거 복지 모델을 구축키로 했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양육을 받을 형편이 안되는 아동들이 아동보호시설(보육원 등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18세가 되면 퇴소해 자립하게 되는 이들로, 전남도는 8월 말 기준 전남지역 자립준비청년들이 403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명창환 전남도행정부지사, 장충모 전남개발공사사장, 김종훈 광주은행 부행장, 문성운 전남자립지원기관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시설을 퇴소해 홀로 자립해야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복지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주거·생활지원을 결합한 복지모델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정책사업을 총괄하고 전남개발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일부를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해 최대 6년간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광주은행은 입주 청년 1인당 약 100만 원 상당의 생활필수품과 소형가전 구입비를 지원하고 전남자립지원전담기관은 후원금 관리, 자립 정보 제공, 경제교육과 상담 등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남도는 이번 협약이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가 지난 2023년 전남지역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결과, 자립준비청년 10명 중 3명은 경제적 문제로 자살을 생각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4명 꼴인 38.4%가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임대주택·자립지원시설에 살고 있지만 응답자의 8.9%는 기숙사, 고시원·모텔, 친구 집 등에 머무르는 등 주거가 불안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31.4%의 자립준비청년들은 친구 집, 고시원, PC방·만화방, 여관·모텔 등 취약한 환경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자립준비청년 10명 중 3명은 안정된 주거가 없어 친구 집이나 고시원, PC방·만화방, 여관·모텔 등을 옮겨다니는 생활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주거지원통합서비스가 절실하지만 당시 조사에서는 10명 중 8명은 서비스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가장 도움이 되는 자립지원서비스로는 자립정착금(1위)→자립수당(2위)→디딤씨앗통장(3위)→임대주택(4위)→등록·장학금(5위)→문화 지원 등의 순으로 꼽았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열여덟 어른이라 불리는 자립준비청년은 이른 나이에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하는 만큼 따뜻한 동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내년 R&D 예산 235억 43.2% 증액

‘차세대 융합면역치료’·‘해양배터리 특화 데이터 허브’ 등 탄력

전남도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43.2% 늘어난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2026년도 정부 예산에서 전남지역 R&D 예산은 235억원으로 올해(164억원)보다 증가했다. 총사업비 규모로 따지면 2045억원(국비 1689억원) 대규모다.

구체적으로 바이오 산업으로 구분되는 ‘차세대 융합면역치료 원천기술 개발’ 사업에 40억원이 확보되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사업은 화산 바이오 특화단지를 통해 암세포 내성에 대응하는 미래형 면역항암제를 개발을 목표로 하며, 전남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배터리 특화 데이터 허브 플랫폼 기술개발’(20억원)도 눈에 띈다. 전남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안해 내년도 정부예산 연계사업으

로 선정된 사업으로, 해양배터리 데이터 허브 구축을 통해 해양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다중 배출원 적용 CO2 전처리-액화-병거링 허브실증 기술 개발’(40억원)과 ‘선상용 CO2 포집 기술개발 및 실증’(55억원), ‘미래 모빌리티용 고분자 공중합체 제조기술 개발’(55억원)이 반영됐다. 탄소포집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석유화학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계획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연구개발은 국민주관정부가 추구하는 초혁신성장과 K-프리미엄의 기틀을 세우는 가장 확실한 투지”라며 “대학·연구원 등 혁신주체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히 소통해 연구개발 사업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이민단속으로 체포됐던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직원들이 애크랜타 공항으로 향하기 위해 11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톤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구금 한국인 316명 7일만에 집으로…석방 절차 마무리

“美 재입국 불이익 없다” 확약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명이 일주일 만에 귀국길에 올랐다.

지난 4일 대규모 단속으로 체포된 뒤 포크스톤 구금시설에 수용됐던 이들은 11일 새벽 철문을 나서 전세기를 통해 귀국 절차를 밟았다.

미 동부 현지시간 오전 2시 18분(한국시간 11일 오후 3시 18분) 일반 버스 8대에 나눠 타고 하츠필드-잭슨 애크랜타 국제공항으로 이동을 시작한 이들은 수갑이나 구속장치 없이 평상복 차림으로 버스에 탑승했다.

대한항공 전세기에는 한국인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 등 총 330명이 탑승할 예정이며, 전세

기를 통한 자진 출국에 동의하지 않은 영주권자 1명을 제외한 전원이 귀국한다. 전세기는 현지시간 11일 정오 출발해 한국시간 12일 오후 4시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 귀국 절차는 당초 10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미 정부가 전날 밤 일방적으로 절차를 중단해 하루 지연됐다.

구금자의 조속한 귀환을 기다리던 가족과 기업 관계자들은 애크랜타에 태워야 했다. 앞서 미 당국은 조지아 엘러벨에 건설 중인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등 300여명을 포함해 총 475명을 체포했다.

이번 사건은 대규모 한국 근로자 구금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양국 관계에도 부담을 줬지만, 귀국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면서 파장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다만 구금 사태의 경위와 미국 정부의 급작스러운 절차 중단과 비자문제 등은 향후 양국 간 외교 현안으로 남을 전망이다.

외교부는 귀국 인원의 원활한 입국을 위해 법무부·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금된 국민들이 전세기를 타고 귀국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는 일은 없을 것임을 미국 측으로부터 확인했다”며 “이번 사태로 향후 미국 재입국에 불이익이 없다는 확약도 받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대구 여성단체, ‘달빛동맹’ 세계양궁 공동응원

광주시와 대구시 여성단체가 광주에서 ‘2025 광주-대구 달빛동맹 교류행사’를 열고 상호 연대와 협력을 다졌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광주와 대구 여성단체 간 ‘2025 광주-대구 달빛동맹 교류행사’가 광주시 동구 5·18광주민주광장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환영식과 시민참여 캠페인, 스포츠·예술 관람을 한데 묶은 하루 일정으로 꾸며졌다.

교류행사는 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에서 열린

환영식으로 시작했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 이 주재했고 이영숙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과 이종선 대구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두 지역 활동가 등 약 80여 명이 자리했다. 참가자들은 이후 ‘달빛천심’ 아침밥 먹기 캠페인에 함께하며 우리 농산물의 가치와 소비 확대에 뜻을 모았다.

도심 현장 프로그램도 이어졌다. 5·18광주민주광장에서는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남자 리버브 개인 결승전을 관람하며 스포츠를 통한 화합을 다졌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는

세계적 미디어 아티스트 로지 아케다 개인전을 함께 관람해 현대예술을 매개로 공감대를 넓혔다.

이번 일정은 교류의 형식에 그치지 않고 정책·문화 교류의 접점을 늘리는 데 방점을 찍었다. 양도시 여성단체는 각자의 현장 경험과 여성정책 사례를 공유했고, 지역 공동체의 성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광주와 대구의 여성단체 교류는 2014년 시작돼 해마다 상호 방문으로 이어져왔다. 지난 6월에는 대구에서 상반기 교류를 진행했으며, 이번 광주 일정으로 연례 교류의 연속성을 확인했다. 광주시는 여성단체 간 교류와 연대를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여주시 공고 제2025-2691호

화양면 화양고 앞 도로확장(시도28호선공사 관련 도로구역(변경) 결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동의 의견 청취 공고

화양면 화양고 앞 도로확장(시도28호선) 관련하여「도로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동의사정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도로구역(변경) 결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주민 및 이해 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8일
여 수 시 장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화양면 화양고 앞 도로확장

• 위 치 : 전라남도 여주시 화양면 화동리 950-2번지 일원

• 사 업 내 용 : 도로확장(=112.7m, B=10.5m, A=1.430m)

• 사업 시행자 : 여주시청(여주시 시청로1)

• 사 업 기 간 : 당초) 2023. 11. 1. ~ 2025. 12. 31.
→ 변경) 2023. 11. 1. ~ 2026. 12. 31.

2.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여주시 도로과 (※ 전라남도 여주시 시청동 1길23 1층(학동))

• 열람기간 : 2025. 9. 10. ~ 2025. 9. 24. (14일간)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열람기간 내

• 제출방법 : 열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문 의 처 : 여주시 도로과(☎061-659-4077)

4. 출입 통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03조)

출입기간	출입할 토지	출입사유	비고
2025. 9. ~ 사업종료 시까지 (입출구 ~ 일출 전)	불입 토지로서 침조	기본조시, 분할축합, 강정평가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주시 도로과(☎061-659-4077)로 문의 바랍니다.

나주시 공고 제2025-1481호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의견청취 열람 공고

나주시 다도면 송하리 1219-1번지 일원 「해피니스CC 조성사업(변경)」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2일
나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가. 용도지구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내세분	위 치	층수 제한 내용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14	해피니스 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다도면 송하리 1219-1번지 일원	5층 이하	2,645,370.1	정) 2,453.7	2,647,823.8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도 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10	해피니스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휴양형)	다도면 송하리 1219-1번지 일원	2,645,370.1	정) 2,453.7	2,647,823.8		

다. 지구단위계획

구 분	변경내용	비고
기반시설	• 도로1-1호선 선형 변경: L=1219m → 1,128m(간 91m) • 주차장 면적 변경: 29,090㎡ → 26,221㎡ (감 2,869㎡)	
가우 및 획지	• 관광휴양시설용지: 콘도미니엄12 폐차(24,541㎡), 야생장 산설(20,928㎡) • 체육시설용지: 골프장 면적 변경(2,591,749.1㎡ → 2,600,674.8㎡ (증 8,925.7㎡)) • 주차장용지: 주차장 면적 변경(29,090㎡ → 26,221㎡ (감 2,869㎡))	세부내용 열람자료 참조
건축물	• 관광휴양시설용지(야생장) 신설 - 지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제20조94 별표1 제29호 야생장시설 - 불허용도 : 지장용도 외의 용도 - 건폐율/용적률/높이 : 40%/0.16/100%/0.16/2층이하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3. 열람장소 : 나주시 도시과 및 다도면 행정복지센터 사무실

4.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5. 9. 12(금) ~ 9. 29(월)

5.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

• 열람장소(현장) 직접 또는 전자우편(jw9821@korea.kr) 제출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도시과 도시계획팀(☎061-339-8973)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 장 비 용 없 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신

光州日報

구독문의

2220000055510

자본감소공고

본 회사는 2025년 09월 11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800,000,000 원중 금 500,000,000원정을 감소하여 금 300,000,000원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1주금 액 금10,000원의 주식 50,000주에 대하여 각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비율대로 유상소각하여 발행주식 총수 80,000주를 30,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이 자본 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와 구주권을 가진 사람은 이 공고제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2일

청담썬파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북구 비엔날레로 82빌딩29 2층 (영봉동)

대표이사 오병현